

조희제의 일상 조사하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애국지사들의 항일활동 행적을 기록한 야사가 많이 편찬되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정교의 대한계년사 황현의 매천야록 송상도의 기려수필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야사 외에도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의 항일운동과 애국지사들의 행적 등을 기록한 책으로 염재야록이 있다. 전북 임실의 유학자인 조희제가 을미사변과 한일합방 전후 그리고 일제 강점기 치하에서 항일 운동을 펼치거나 절개를 지켰다. 뿐만 아니라 을미사변, 을사늑약, 한일합방 등의 전말과 각종 상소문과 격문·통문 등도 수록되어 있다.

